

사순 제1주일

제 1독서 : 창세 2,7-9 ; 3,1-7

제 2독서 : 로마 5, 12-19

복 음 : 마태 4, 1-11

순정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 4,4).

강론

“세 가지 유혹”

왕수해 신부 / 육봉 천주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년간 술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엘리야는 주야로 사십일간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 하느님을 만나뵈었으며 예수님은 공생활에 앞서 40일간 단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향해 40일간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40일간 단식뿐 아니라 특별히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빵과 세상 영화와 하느님 신뢰에 대한 회의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가장 무서운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의 근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제일 높게 공경해야 하는데 빵과 세상 영화와 신앙의 불신은 하느님을 이것들보다 못한 제 2차적인 것으로 하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빵과 세상 영화와 불신은 하느님을 이것들 때문에 무시하게 만들고 이것들을 위해서는 하느님을 잠시 버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의 악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가장 무서운 이 모습을 간파하셨고 이 세 가지보다 하느님이 훨씬 높으시고 그분을 먼저 찾아야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는 사탄이 보여 주는 세 가지 모두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겠다고 결심하며 첫주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유혹하였듯이 이 거룩한 시기를 망쳐 놓기 위해서 우리를 갖은 방법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도록 할 것이고 정신없이 살도록 우리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는 단 한 가지 하느님을 우습게 보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엘리야처럼 더욱이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이겨내어 부활의 기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40일간 자신을 꿋고 기도에 열렬하며 형제애를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 기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습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신공 빠지지 말도록 합시다.

소리

“삼일절을 맞으며”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 마련한 부동산을 그 증손자가 찾으려고 무더기 소송을 벌여 몇 건은 이미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돌더니 얼마 전 여야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저지코자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완용 후손 토지 환수 저지 의원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 특위와 특별법을 만들어 토지 환수를 막고 아울러 민족 정기 수호를 위한 정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뜻있는 일을 벌인 이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꼭 관철되어 매국노의 유산이 하루빨리 몰수되는 속 시원한 꼴을 보고 싶다.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다.

한 점잖은 주간지는 최근호에서 62년부터 실시돼온 독립유공자 포상제도에 따라 포상 받은 유공자 가운데 친일 행적이 있거나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없는 가짜가 40여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때 독립유공자를 뽑는 자격심사위원회에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파들이 끼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 반세기가 다 되도록 이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 왔고 바로잡혀지지도 않은 것은 나라의 수치이고 자랑스런 선열들에 대한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3.1절에도 우리는 의례적인 행사나 치르고 대문에 태극기만 게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넘기고 말 것인가?

☞

순정이 산책



잠을 깬시다!

성서교실 21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다” (창세 17)

아버지의 고향 하란을 떠나 순례를 시작한 아브람과의 계약은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 계약은 앞으로 야곱과의 계약을 거쳐 시나이산의 계약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의 계약은 노아와의 계약에서 나타난 것처럼 축복과 선물, 약속 그리고 지켜야 할 규범과 계약의 징표가 다 들어 있다.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주어졌고, 가나안 땅이 선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에게 후손을 하늘의 못별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제 하느님은 축복과 선물, 약속의 말씀에 이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신다. 아브람은 서부 셈족의 이름 ‘아비람’과 어근이 같고 ‘아버지신은 존귀하시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당시 근동을 비롯한 동방 사회에서 이름은 인격과 동일시하는 관습을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직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한 유목민의 족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사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그녀에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어 그녀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태어날 것임을 선언하신다. 사라는 원래 동부 셈족어로 ‘왕후’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할례의 실시를 요구하신다. 이 할례 예식은 몽고족과 인도 등 게르만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다. 가나안 셈족과 이집트인들도 위생적인 이유에서 또는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관습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모슬렘 사회에서는 여성에게까지도 이 할례 예식을 베풀고 있다.

유배시절 사제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별로 없었던 이 예식을 하느님과의 계약과 연결시켜 원래 어른이 될 때 하던 이 예식을 생후 8일 된 사내아이에게 실시함으로써



할례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고취시켰다.

하느님은 계약의 징표로서 나이든 부부 사이에 아들을 접지해주시겠다고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웃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손한 태도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고, 하느님이 떠나신 후 그분이 분부하신 대로 온 집안에 할례 예식을 철저하게 실행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웃음이 불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령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나이 백살에 아들을 보다니! 사라도 아흔 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는가?”라고 한 독백이 일말의 불신을 표현한다고 해도 좋다. 여기서 사제들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인간의 태도와 관계없이 심지어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매이지 않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반복한다.

야훼스트 문헌인 18장에 보면 웃음을 터뜨린 사람은 사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데서 나온 기록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 이사악은 ‘그가 웃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

전 광 원 (미르코)
김 소 피 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 (헬레나)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 (요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산수

전주·이리·군산·김제·부안지역 매일
전화: (0652)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공동체
운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5분 교리 25

“평신도의 소명”

(신자들 사이에서 흔히)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 할 때 사제성소나 수도성소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불리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명이 있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그들은 세속에 살고 있다. 세속의 온갖 직무와 일,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조건들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교회31항). 세례성사는 각 신자에게 사도적 소명을 준다.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19-20).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직을 성직자만 할 것이 아니다. 각 신자도 자기의 생활로써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과 가르침으로써 권고하고 격려해야 한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창립되었다. 서적을 통해 학문을 연구하던 선비들이 새로운 진리를 깨우치고 중국으로 건너가 세례를 받고 평신도로 구성된 교계 성직자단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그만큼 진리에 대해 자발적이고 의욕적이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열을 이어받은 평신도답게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고 쇠신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쁨과 열성으로 복음선포에 투신하는 자랑스런 평신도가 되자.

* 참고 자료 : 성직자와 수도자의 그림자 평신도(책)

교 구 소 식

※사제 성소 교육 : 매일 둘째주(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3층, 대상-중·고·대학생
 ◎신학교 지원자는 1년 이상 예비 신학생 모임에 출석해야 하오니 본인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성서교실 신규 수강생 모집 : 신청-2월28일까지 사목국, 교재-여정, 기간-100주간, 개강 예정일-3월17일(수) 오전10시, 수강비-여정 신규반 4만원, 통신성서 2만원.
 2. 이병호 주교님 시순절 특강 : 3월3일(수) 창인동 성당, 4일(목) 중앙 성당, 5일(금) 둔율동 성당 각 오후8시.
 3. 평협 회원 연수회 : 3월6일-7일 천호 피정의 집.
 4. 축! 견진 : 3월7일(일) 오전10시30분 신대인 성당.
 5. 가톨릭 문우회 모임 : 3월6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6. 켄모임 : 3월6일(토) 오후2시 군산 개정간호대학, 대상-일반인, 3월7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생부터 일반인.
 7. 빈첸시오회 연수 : 3월6일-7일 나바위 피정의 집.
 8. 푸른군대 피정 : 3월4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준비물-미사도구, 묵주.
 9. 성모의 기사회 : 3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축! 영명 : 4일(성가시미로) 오펜택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장거리 여행시

경제속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운전하면 차량에도 안 좋고 연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먼거리를 주행할 때 속도를 조금씩만 줄입니다.



여사무원 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영세3년 이상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영세증명서 각1통
 - 제출마감 : 3월21일까지
 - 연락처 : 72-5302
- 덕진 전주교회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법 덕 배(디 토)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APT특수 보조키 ■APT자동 빨래 건조대 ■인테리어 다목적 선반
 ■원목·철제가구

성원 인테리어 총판

서원식(야고보)
고선규(미카엘라)
☎ 78-1941, 252-9233

할 티 생 수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축! 개업
각종 행사 사진·비디오

서강 인물의 명문 사진관

거실에 가족 작품 사진
박종관(스더왕) 김미숙(실비아)
송천동 성당 옆
☎ 72-9671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차역 전시장) 3층
☎ 88-558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환영: 여우간다, 민이레네수녀님 환영합니다.
1. 사순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2. 성시간: 4일, 저녁미사 후. 3. 사목회상임: 5일, 저녁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5일 신청바람. 5. L.M.간부교육: 6일 후2시, Pr. 전간부 참석바람. 6. 12월 영세자 첫고해: 7일 후4시. 7. 여성연합회 피정: 11일 전9시30분~후4시, 참가비 2,000원, 미사있음. 8.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2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희장(4일 전10시30분) ③윤드레아(7일, 장엄미사 후) 9. 신학생비 모금 저금통 및 사랑의 성미운동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10. 금주청소: 중노9, 10반, 차주청소: 중노11, 12반.

☐ 지난주 봉헌금: 910,650원 ☐ 교무금: 72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가정방문: 3월2일 진북1반(오전9:30~) 3월2일 진북2반(오후1시) 3월3일 진북3,4반(오전9:30~)
2. 예비자교리: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수녀님반)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3. 성체강복: 3월4일 저녁미사 후.
4. 회합: ①윤드레아-3월2일 저녁미사 후 ②자모회(3월4일 오전10시) ③대건회(7일 공식미사 후) ④사목회-7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황만급, 독서-정승관씨 부부.
봉헌-이병현씨 가족.
차주전례: 유두석,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김중성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0,820원 ☐ 교무금: 1,042,95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한 동 목

※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1. 오늘은 사순 제1주일!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은총의 시기.
2. 환영: 이실비아, 윤바리 도미니카 수녀님-환영합니다.
3. 분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모든 미사 중.
4.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6일(토) ③성시간및 성체강복-4일(목) ④꾸리아-7일(일)
5.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 주일)
6. 성지순례: 내일(월) 오전7시: 30분 출발, 배론.
7. 축! 푸르실료 수료: 이정애(테레사) 자매님-데! 콜로레스
8. 전례봉사자 모임: 6일(토) 저녁미사 후, 성당.
9. 청소년사: 모든 성인의 모후Pr.
10.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례
봉헌-김한철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9,420원 ☐ 교무금: 19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 명 동

※ 오늘은 사순 제1주일! (3월은 성요셉의 달)
1. 회의: ①사목회-3월3일(수) 저녁7시30분 ②자모회-3월3일(수) 오전10시30분 ③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꾸리아-다음주일(3월7일)오후2시.
2. 알림: 매주 금요일은 금육의 날입니다(검소한 생활로 사순절을 뜻있게...) ②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십자가의 길 있음(많은 참여 바람) ③사순절 동안이라도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제를 가집시다. ④교무금과 봉헌금(주일헌금)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정성어린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98,100원 ☐ 교무금: 61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오 직 환

※ 사순 제1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2. 십자가의 길 기도: 평일미사 30분전.
3.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92년도 교무금 미납된 분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사: 3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734,100원 ☐ 교무금: 1,16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사순 제1주일.
1. 금주: ①전례수녀님(이이레네)부임, 환영식(공식미사 후) ②성마리아Co(후2시) ③축. 여성41차 푸르실료 수료: 이정숙(마리아), 한민정(글라라)자매님.
2. 부활권공성사시작: 3월2일부터 평일미사 후에.
3. 성가정회: 2일(화) 오전11시.
4. 금주 명화상회: 3일(수) 오후7시40분, 제목: 왕중왕.
5. 전동 성서교실: 3일, 저녁미사 후, 사제관 2층 회합실.
6. 성체강복 및 조배: 4일, 오전10시. 7. 봉성체: 5일, 오후2시.
8. 빼에따회: 6일(토) 오전10시.
9. 신학생 양성을 위한 사순절 돼지저금통 배부: 사무실.
10. 감사합니다: 종당12사도 문스테인드글라스, 봉헌(익명-300만 원, 100만 원) ☐ 지난주 봉헌금: 1,810,4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새입주 신자 환영미사: 28일 저녁7시 지하 교리실 목련, 주공204동, 205동, 301동, 302동, 303동, 효성아파트.
2. 성시간, 성체강복: 4일 저녁7시30분.
3. 구역 반희장 연수회: 2일 전10시30분.
4.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6일 교리-후2시30분, 미사-3시30분.
5. 구역미사 일정: 1일-9구역6반 저녁8시, 2일-18구역1반 후3시, 13구역3반 저녁8시, 4일-2구역2반 전10시30분, 13구역1반 후3시 5일-4구역4반 전10시30분, 12구역1반 후3시, 9구역1반 저녁8시, 6. 유아세례: 6일 후3시.
7. 부녀회: 3일 어머니미사 후.
8. 축! 결혼: 신랑-이용석, 신부-안미정(아네스) 7일 12시30분, 부궁화예식장, 성가대 도와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70,220원 ☐ 교무금: 1,48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 병 갑

1. 꾸리아 창당: 오늘미사 후.
2. 축! 푸르실료수료자 탄생: 여성 제40차 윤영심(글라라)
3. 구역장 월례회: 2일(화) 오후8시.
4.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2시.
금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이순애, 이근기
차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 이금숙, 박경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목회장이 동 섭
1. 환자 봉성체: 3월2일(수) 전10시.
2. 구역 봉사자모임: 3월3일(수) 전10시30분(저금통과 건진신청서 나눠드립니다)
3. 울드레아: 푸르실료수료자 탄생 축하합니다(박형원, 윤병우, 최삼현, 김혜숙, 권경현) 울드레아 집행부 개편(지난 집행부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김익창, 부간사-고한길, 이금순, 홍무-윤병우, 재무-이은희, ☐ 지난주 봉헌금: 1,391,990원
4. 사목회: 3월5일(금) 후8시, ☐ 교무금: 1,850,000원
5. 주일학교 개학: 3월6일(토) 후3시(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킵시다)
* 건진신청서: 3월28일(일)신청서는 구역장님들이 배부합니다.
※ 미사안내: 금주-다위담, 성즈들의 모후, 차주-순결하신 모후, 매피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안내: ①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여성분과회-5일(금) 10시미사 후.
2. 축! 이달마리아원정수녀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봉성체: 4일(목) 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축! 푸르실료수료자 탄생-원혜자(세라피아) 백병회(아네스)
5. 본당바자회: 5월20(목)-23(일)
차주모임: 꾸리아, 레지오단원교육(3,8), 신축헌금봉헌액: 900,000원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이태영 ②한정숙
봉헌안내-최재준 부부, 제외병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이준영 ②윤귀임
봉헌안내-김장관 부부, 유준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57,670원 ☐ 교무금: 2,025,000원